

『화재예방교육 100만명 목표 선언식』 거행



협회는 지난 8월 7일 6층 회의실에서 이창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본부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교육 백만명 목표 선언식』을 가졌다.

이창규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화협에게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은 그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반 국민에 대한 화재계몽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화재예방 계몽활동을 가장 적극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화성 씨랜드에서 돌아간 어린 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화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부터 생명

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화재예방 교육 백만명 목표' 설정은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큰 의미와 함께 화보협회 존재 가치의 인정, 타 기관과의 차별화 등 대외에서

보는 화협의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 운동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화재예방 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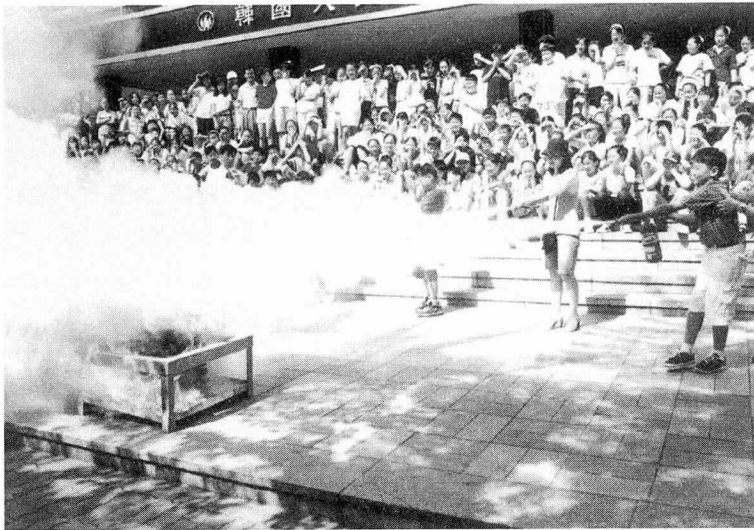
이번 백만명 달성 선언식은 화성 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는 특별과정에 대한 교육참여자의 호응이 높으려다 우리 협회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 화재 예방 계몽 홍보 활동의 주역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교육이수자는 조선일보 청소년수련원, 대양직업전문학교 등 단체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덕성여대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이 특별과정을 실습과목으로 채택하여 214명이 수료하기도 하였다.

8월 중에는 지방에서 요청한 단체 및 수련원, 기업체 등을 순회하는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7일 대구지역의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대전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8월 3일 울산지역 동향원과 대전지역 명주원, 향림원의 교육은 원생들을 위해 신우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뜻 깊은 원생 위로 행사도 있었다.

그 동안 무료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살펴보면 7월 9일 서울 라디오 아침방송 7시20분 봉두완씨가 진행하는 SBS 전망대 프로그램과 KBS-1 라디오 방송 등에서도 취재 방송한 바 있으며,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등 28개 신문사에서 교육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8일에는 MBC-TV에서 3시간동안 교육과정을 전부 취재하여 7월 29일 MBC-TV 아침 뉴스에 약 2분에 걸쳐 소개된 것은 특별교육과정의 사회적 기여를 반



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월 12일 첫 교육이 시작한 이래 7월 30일까지 15일간 서울지역 1차 교육 참가자 수는 2천 4백22명으로 1일 평균 160여명이 이수하였고, 8월의 지부 순회교육을 포함하여 9월 30일 현재 교육이수자는 32,350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부실적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어 지부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9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